

(15-016) ○○교 보수공사 중 공중비계 흔들림 및 붕괴로 근로자 추락사고

공사명	○○군 ○○면 일원 도로정비공사(2차)		
사고일시	2015년 10월 10일(토) 09:30분경	기상상태	비
소재지	경기도 양평군 회현리	사고 종류	추락
구조물 손실	-	인적피해	부상 4명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 ), 해당없음( ○ )

사고개요	<p><b>① 공사개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종류: 도로교량(보수공사)</li> <li>○ 규모: 강재구조물 외부도장 884㎡</li> </ul> <p><b>② 사고경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수보강공사 작업을 위해 공중비계를 설치한 작업대가 흔들림 및 붕괴되면서 근로자 4명이 7m아래로 추락 3명이 부상.</li> </ul> <p><b>③ 사고원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계 설치 불량.</li> </ul>
------	--

재발방지 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</li> <li>○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,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비계 조립 전에 구조, 강도,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,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의 종류, 규모,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,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.</li> <li>○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,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</li> </ul>
---------	--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 전경

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